

· 학술 단신

보조·태고학 집중조명 '보조사상' 8집발간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이 '보조지론과 태고보우의 선사사상'이란 주제로 <보조사상> 제8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지난해 7차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고려임제선법설의 수용과 전개'(서운길), '조계종에 있어서 보조의 위치: 형성과 법통론제'(법산) 등 4편의 논문과, 연구회 원논문 2편이 게재돼 있다.

21세기 종교의 과제 강연

윤이훈 서울대학교(종교학)는 지난 25일 오전 8시 서울 코리안호텔 로열룸에서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주최, 종교인 조찬연구회서 '21세기에 당면한 종교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불교학연구회' 3주년 기념논문발간행

한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이 개간 30주년(1992)기념 논문집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을 뒤편게 발간했다.

이 논문집은 그간 국내 불교학연구의 경향에 대한 개괄적 분석과 주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경향에 대한 전망과 미래적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와 환경' 강좌 외국모범사례등 발표

환경운동연합은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수유리 크리스천아카데미 다습교육관에서 제1기 '지방자치와 환경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 실상을 알 수 있는 문제점과 지방자치의 역할, 외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범 사례들이 다뤄졌다. 강사는 최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시인 김지하씨, 고건 전서울시장, 김상중 서울대학교 등.

조선시대 불화논문 발표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이대 박물관에서 제1회 불화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조선 전기의 서묘 불화'(박은경, 동아대)와 '조선시대 묘법연화경 관화연구'(박도화, 동국대) 2편.

'고대 한국의' 출간

한국사 특히 고대국가와 토착신앙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고려대 최광식 교수가 불교 수용 이전 토착신앙에 대한 저서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한길사 펴냄)를 출간했다.

“혜초스님은 동서교류 중세사 연구의 개척자”

한국불교 교류사 연구하는 단국대 무하마드관수교수

“혜초의 발자취를 현지답사 하면서 중국명교에서 차지하는 혜초의 위상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혜초가 선유사(仙遊寺)에서 기우제를 지낸 후 황제에게 올린 '상표(上表)'를 새로 발견한 것이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겠지요.”

한말동안 혜초의 권력을 따라 중국현지 답사여행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귀국한 무하마드 관수 교수(단국대 사학과)의 소감이다.

혜초의 행적과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재삼 검토해 보면 보완·재교과야 할 문제들을 알 수 있다는 그는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원문의 발굴, 전반적 여정 특히 북한측(北天竺)으로부터 엔지까지의 노정 확정, 현존 잔편(殘卷) 내의 공백지와 결자의 보완, 지명비정(地名比定)의 재검토, 서역여행의 역사적 의의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수교수는 여행기의 정편에 걸쳐서 혜초의 직접적 방문을 입증하는 관공 시문구(始末句) '從...行...日...至...'의 사용과 기술 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대식국(大食國)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근거해, 혜초의 서역여행의 끝은 통설처럼 토크리스탄이 아닌 대식국(이란 북부)의 나

중국 선유사서 上表 발견...한국불교 南來說 주장

이씨를 지방일 것이라는 주장을 <정신문화연구> 제54호에 게재한 바 있다.

“혜초는 사상 최초로 아라비아를 '대식'으로 명명하고, 한자문화권내에서는 처음으로 대식지역 건국통을 통해 8세기 인도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지역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남겼으며 동서교류와 중세사 연구의 개척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관수교수는 '한국불교의 남방전래설'의 주장자로서 잘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막연한 설화로만 치부되던 이러한 주장을 '한국불교남래설 시고'란 논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학술적 가설을 세운 이가 바로 그다. 금강산유점사의 53불상의 레박(樂石)이나 강원도 낙산의 관음신앙, 가야 건국설화 등의 불교적 요소 등이 남방전래설의 주요 논거다. “불교의 정확한 남래(南來)

시한은 아직 단정할 수 없으나, 유점사의 53불상이 신라 남해왕 원년(기원 4년)에 레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남래설은 후한 명제 영평10년(기원 67년)에 전래한 중국불교보다 63년, 그리고 북해한 고구려불교보다는 약 370년이나 앞서 전래된 것으로 된다. 이밖에 수로왕의 불행(佛行)을 기준삼아도 고구려보다 2백년 앞서게 된다.”

관수교수는 이같은 남방불교의 전파 및 친승관계와 성격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논문을 내년에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4년 내한한 관수교수는 한국 여인과 결혼한 필리핀인, 서울대 등에서 공부한 후 단국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서교류사를 전공, 혜초와 그의 <왕오천축국전>에 관한 연구논문인 <신라·서역교류사>(단국대출판부, 1992)를 비롯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불교의 교류사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김재경 기자>



◇무하마드관수 교수

구걸이 공덕을 쌓게 하는지

문 인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구걸하길래 돈을 조금 주었더니 고맙다고는 인하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편잔을 주니까 하는 말이 “당신 공덕 쌓는데 내가 왜 고맙다 하느냐. 당신 복 많이 지으라고 더 달라는 게 나쁘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안진경)

답 주었으면 제대로 받게 받는 것 아닌 받는 것이지만 굳이 더 달라는 것은 뭐니까? 달라고해서 주는 게 무슨 공덕이었습니까? 주고 받는 보시의 공덕이란 준 사이도 없고 받는 사이도 없이 할 때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을 때 일체제불과 한마음이 되어 했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지요. 가계에 물건을 사러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샀을 때 돈을 냈다고 생색을 내졌습니까, 물건 내졌다고 생색을 내졌습니까?

나쁜놈도 가벼워질 수 있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근본이 되는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살라하시는데 가령 나쁜 짓을 하고도 주인공을 찾으면 업이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경남 양산군 양산읍·정달자)

답 우리를 각자에게 무수히 많은 의식들이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목록이 있습니다. 현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잘못되는 일들도 다 업식, 말하자면 목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되는 게 죄를 지어야 한다는 의미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잘 가도록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업식은 때로는 신장이 되고 때로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렇게해서 나를 가르치고 내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가만 있으면 법신이라고 움직이면 보신·화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나 “이유가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업이 많아서 이 고생인가” 하고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하, 이거 내가 밖으로 쓰러져서 그렇구나’, ‘나를 경책해서 진화시킬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빨리 깨우쳐야 누적인 것 지우며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리에 놓으라는 것도 본래 거기서 나온 것이니 그 도리를 알고 한 생각 돌려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억겁 거치면서 자기가 했던 것은 속 빼놓고 팔자타령, 남의 탓이나 한니까 업은 갈수록 두둑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주고 혹은 뺏어가고, 잘못했다고 매리고 잘못했다고 상 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깨우칠 줄 못해 무명이 앞을 가렸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나, 주인공은 남남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다 알고 있는 주인공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철심같이 맑은 마음으로, 어린애가 엄마를 믿듯이 그렇게 믿고 맡기면 분명코 스스로 터득하는 바가 있게 됩니다. 그게 공부가 되어가는 징조입니다. 맛을 보는 것, 체험입니다.

지상상담 길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해음선원 대행스님에게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법경스님, 뇌허불교 학술상 수상

'제일의공경 상속설' 연구로...내달5일 시상식



◇법경스님

법경스님(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이 <인도철학> 34집에 게재된 논문 '제일의공경(第一義空敬)과 바수반드(Vasubandhu)'로 제12회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실재론적 철학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삼세실유설(三世實有說)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고 달마(dharma) 이론을 비판한 경량부(經量部)의 '상속설(相續說)'이 연구의 핵심이다. 논문은 <제일의공경>을 연구의 길잡이로 삼아, 바수반드의 유부(有部)에 대한 비판방식과 상속설의 전개과정을 그가 인용한 경정들을 재검토하면서 규명하고 있다. 뇌허학술상은 뇌허종회와 뇌허학회를 기리고자 뇌허불교학술원(원장 전관용)이 매년 시

상하고 있는 불교학술상. 시상식은 4월5일 오전10시 정각사에서 갖게 된다. 상금은 2백만원

한국학연구교제 불교분과 심재용교수등 집필자 선정

서울대와 뉴욕주립대가 공동으로 편찬하는 '한국학연구교제'의 불교분과 책임집필자로 심재용교수(서울대)가 선정됐다. 지난 15일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주최 '영어권 사용 한국학연구교제 편찬회의'에서 불교분과 집필을 맡은 학자들은 기초도입부에 김영호교수(인하대), 통일신라 교회사상에



◇심재용교수

정영근교수(서울산업대), 고려불교에 최병현교수(서울대), 조선불교에 심재용교수, 근대불교에 허우성교수(경희대)로 밝혀졌다. 심재용교수는 “한국불교가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따르면서, 동시에 주요 교리체계와 기본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집필 방향을 소개했다.

각기 다른 계승을 이렇게 한데 모아 하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련의 묘미이기도 하다. 첫구절 「七重...」은 보장전의 주련에서 또 쓰이고 있다. 다만 「金界」에 대한 품어가 여기서는 금사계(金沙界)로 관세음보살이 사는 세계를 뜻하고 보장전에서는 금강계(金剛界)를 뜻하는 해석상의 차이를 갖는다. <인동 경인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환 해인사 (관음전) 七重寶樹園金界 (힐중보수유금계) 一片冰心在玉壺 (일편빙심재육옥)

此時間木犀香(차시문목서향호) 當下知梅子熟矣(당하지매자숙의) 黃菊充庭秋富貴(황국충정추부귀) 雙藤滿地古烟霞(쌍릉만지고연하) 身似菩提心似鏡(신사보제심사경) 有那? 公比로 매화나무 열매가 잘 익은 줄 알았다. 노랑 국화가 뜰에 가득하니 가을이 부귀롭고 일키실기 등나무 덮인 숲 옛 산수 경계로구나. 몸은 지혜의 나무 마음은 거울과 같으며 구름은 청천에 물은 병안에

관세음보살 자비심 찬탄한 계승 해설 관세음보살의 한량 없는 자비심을 찬탄한 힐중 보수가 극락세계를 에워싸고 일편빙심이 옥 항아리 속에 들어 있네. 이때 물푸레나무 향대를 말

관세음보살 자비심 찬탄한 계승

雲在青天水在瓶(운재청천수재병) (운재청천수재병) 힐중 보수가 극락세계를 에워싸고 일편빙심이 옥 항아리 속에 들어 있네. 이때 물푸레나무 향대를 말

대불련 총동문회 사단법인 창립 총회. 전국 대학교의 불교학생회 동문은 스님, 법사, 학자, 신도, 청년회원을 막론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제방 대덕 큰스님 지도교수 선배님께서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하범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큰스님 격려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든각 박사. 일시: 1995년 4월 16일(일) 오후 1시. 장소: Hotel Lotte 3층 사파이어 볼룸. 등록: 회비 2만원을 4월 10일까지 사단법인설립추진실무위원회 계좌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불련총동문회 사단법인설립추진실무위원회. 대회장 명호근, 공동대회장 이순규, 공동대회장 송성선. 온라인 계좌(예금주:신상철) 한국외환은행 139-19-32184-3, 한일은행(약수남) 187-129640-12-101, 중소기업은행(약수) 213-018286-03-011.